

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

설교 시간에 목사가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.

“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.”

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. 목사가 다시 물었습니다.

“아무도 없어요? 손들어 보세요!”

그때 맨 뒤에 앉아 있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.

목사님이 놀라 큰소리로 물었습니다.

“할아버지, 우리 교인들을 위해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?”

할아버지는 이가 없어 발음이 다 새는 소리로 말했습니다.

“응, 있었는데 다 죽었어.”